

옛 도청 본관 외벽 5·18 총탄자국 등 복원 논란

“탄흔 식별 못해... 마감재 제거 땀 재조사”

국과수 조사 결과 통보

문화전당 “공사 완료 복원 불가”

오월단체 “기술보다 의지 문제”

“광주항쟁의 역사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공사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원형 복원은 불가능하다.”

광주항쟁 시민군들의 거점이었던 옛 전남도청 본관 원형복원 문제를 놓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과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의 해법찾기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간극이 큰 양측의 입장차 만큼 민평 개관 시기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광주항쟁 단체들이 문제삼은 전남도청 본관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6개 건물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을 구성하는 건물이다. 이 공간에는 광주항쟁 역사를 예술로 풀어낸 ‘열흘간의 나비떼’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화전당측은 도청본관 외벽을 페인트 칠하고 내부를 단장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지난해 말 끝냈다. 5월 단체들이 지적하는 시민군 상황실의 일부 공간에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5·18기념재단 등은 “도청 본관은 광주항쟁 시민군 상황실이 있었던 곳으로 군부의 진압과정에서 총탄자국이 건물 외벽에 남아 있었다. 문화전당측에서 이를 훼손한 만큼 책임을 지고 건물을 원형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올초부터 이어진 양측의 대립으로 민평의 내부 콘텐트 구축 공사는 현재 중단됐고, 문화전당 5개월 가운데 유일하게 개관하지 못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5월 단체 등의 원형복원의 목소리가 거세자 문화전당측은 지난 2월 국립과수조사연구원(국과수)에 총탄흔적을 찾아달라



오월 그늘의 총탄 흔적 어디에... 5·18단체들이 원형복원을 촉구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본관 전경. 이 공간은 옛 도청 회의실,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건물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총탄 흔적 복원은 기술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수차례 문화전당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밝혔듯이 옛 도청의 시민군 상황실, 방 송실, 총탄 흔적은 원형을 살려 보존해야 한다는 데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고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건물(옛 전남도청 본관)의 후면 외벽과 건물 내부 벽체에서는 현 상태에서 총탄흔적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감정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건물 앞쪽 우측벽에서 일상적인 손상 흔적과는 다른 형태의 손상 흔적이 발견됐으나 총탄 흔적인지는 단정하기 힘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그러나 현재 총탄 흔적 확인의 장애물로 거론되는 (도청 본관)외벽 마감재 제거 대책을 수립한 후 재조사를 의뢰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응하겠다는 입장을 문화전당 측에 전달했다.

문화전당측은 “현재 건물외벽과 내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황실 복원문제에 경우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해야 하고 내외부도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모두 뜯어내는 등 재공사를 해야 한다”며 난색이다.

문화전당 내부에서는 복원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에 버금 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민주평화교류원의 장기 개관 차질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속살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현재 건물외벽과 내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황실 복원문제에 경우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해야 하고 내외부도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모두 뜯어내는 등 재공사를 해야 한다”며 난색이다.

문화전당 내부에서는 복원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에 버금 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민주평화교류원의 장기 개관 차질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속살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현재 건물외벽과 내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황실 복원문제에 경우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해야 하고 내외부도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모두 뜯어내는 등 재공사를 해야 한다”며 난색이다.

20대 국회 원구성 난항...여야 오늘 협상 재개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되지만, 여야의 협상이 헛바퀴를 돌면서 이번이 없는 한 이날까지 원(院) 구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여야 3당은 원 구성 시한 이를 전인 5일에도 협상 중단 책임이 상대편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내탓 공방’만 하고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분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협상 재개의 요건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대화를 접고 협상을 중단시킨 책임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위원장 양보 의사를 밝히는 등

원 구성 협상의 의지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3당 수석부대표들은 전날에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게 두 야당의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제43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14일(화) 오후 3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서 시상식



심효섭씨 김점초씨 김덕례씨 안중순씨 김명식씨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43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을 14일 오후 3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수상자 심효섭씨(상이군경 부문·66·광산구 신촌동)
- 김점초씨(중상이자배우자 부문·64·북구 운암동)
- 김덕례씨(미망인 부문·79·광산구 도덕동)
- 안중순씨(유족 부문·67·북구 임동)
- 김명식씨(특별 부문·82·남구 백운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에너지밸리 R&D센터 나주 혁신산단에 조성

1000억 투자 2017년 착공

에너지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이하 R&D센터)가 나주 혁신산단단지 내에 조성된다. 에너지 관련 기업과 R&D센터가 나주에 들어서면서 전남 미래산업의 새로운 틀짜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월 전남도,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1000억원을 투자해 나주혁신산단에 3만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동, 시험동, 시험장 등으로 구성된 R&D센터를 조성한다. 연구인력은 200여 명으로, 대전의 전력연구원과 고장의 전력시험센터와 협력해 에너지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R&D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신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산업 및 미래 신기술 실증인프라 구축,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빛가람에너지밸리 활성화의 또 다른 기폭제가 마련되고, 나주혁신산단 분양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남도와 나주

시는 기대하고 있다. R&D센터는 한전 전력연구원(KEPRI) 주도로 올해 착공, 2018년까지 1단계 공사를 준공한다.

R&D센터 유치로 관련 기업들의 나주 이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9일 한전의 에너지밸리 협약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이 착공한 데 이어 투자협약을 맺은 나머지 104개 기업도

실무자를 준비중이다. 한전은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를 이전시켰다는 목표다. 광주에는 상무시민공원 내에 80억원으로 미래에너지, 아트 플라 보레이션, 에너지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구성되는 에너지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전남 모두 한전의 잇따른 지역 투자에 고무된 표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7th Asia Europe Culture Ministers Meeting

주제

“문화와 창조경제 (Culture & Creative Economy)”

일자: 2016. 6. 22(수) ~ 6. 24(금)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일원

주최:

참석: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51개국 대표단, 2개 국제기구 대표단 등 200여명

www.asem2016cmm.org